

국어 관용표현의 분석과 어휘부 내에서의 처리*

이 상 역

(국어국문학과 교수)

1.

1.1. 용어의 정의

관용표현은 대체로 일반적이고 규칙적인 현상으로 파악되기 보다는 인간언어의 주변적이고 예외적인 국면으로 간주되어 이론언어학의 중심적인 논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의 어휘부 중심의 언어이론이나, 사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산언어학 연구의 전개는 언어학적 연구대상으로서의 관용표현의 위상을 새로이 하였다. 관용표현의 정밀한 언어학적 연구는 오히려 인간언어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가능하게 해 주는 주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관용표현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필수공기 관계에 놓이면서 화석화되어 통사적으로 굳어진 채 사용되고, 의미상 그 결합 요소들 각개 의미의 단순한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를 지니게 된 특수 표현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 언어의 전반적인 규칙성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이거나 관습상 통용되는 표현이라고 정의되는 관용표현의 범위가 너무 넓고 포괄적이어서 핵심적인 의미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므로 類概念으로서 ‘관용표현’을 사용하고 그 하위의 여러 種概念으로 속어구문 또는 속어표현, 합성표현, 속담, 격언, 형식표현, 고사성어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용표현의 특성이 그만큼 비문법적이고 모든 특수 어휘군에 두루 관련되어 그 존재 양상이 대단히 복잡하므로 적절한 개념 규정과 대상의 한정을 통하여 하위의 주제를 하나씩 다루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관용표현 혹은 관용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일부 합성어나 다의어, 속담, 구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관용어를 의미의 전용이란 면에서 본다면 단일어 가운데에도 관용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단일어로 된 것은 단순히 그 단어가 의미 확대를 일으킨 다의어 용법으로 보아서 논외로 해 두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이러한 용어의 정의에 바탕을 두고 속어와 넓은 의미의 관용표현에 속하는 다의어, 속담과 은유표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속어의 생성 및 일반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2장에서 관용표

* 이 글은 1993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 학술연구비에 의한 연구 논문임.

현의 하위 분야로서 속어구문을 통사론적으로 한정하고 그 구조를 기술하고 유형화하고자 시도할 것이며, 3장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입’, ‘눈’, ‘손’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 관용어를 일부 합성어와 속담을 포함해서 의미론적 분석을 해 봄으로써 관용표현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1.2. 속어구문과 다른 관용표현

넓은 의미의 관용표현이라는 상위개념으로 함께 묶인 속어구문과 다른 관용표현들은 각기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서로 구분되지만, 특성과 기능에서 어느 정도 동질성을 띠기도 한다. 따라서 각각의 차이가 쉽게 드러나지 않거나 명확한 한계를 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1) 속어와 다의어

다의어는 단어 차원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둘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단어로 정의되지만 속어는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구 또는 절 차원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1) ‘가다’ : 집에 가다, 세월이 가다, 음식 맛이 가다, 주름이 가다, 시집을 가다 등등.

‘눈’ : 눈이 좋다, 눈이 나쁘다, 눈을 감다, 눈이 높다

다의어와 속어의 형성이 모두 의미간의 근접과 유사에 영향을 받은 명칭의 전이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형성단위에 있어서 단어와 구나 절로 구별된다. 실제로 속어구문은 구성요소의 직설적 의미가 나타내는 상황과 속어적 의미와의 연관이 긴밀하기 때문에 구문의 일부가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어 그 상황이 바뀌면 속어적 의미가 사라진다. 속어와 다의어의 구별을 언어단위의 차이에 따라 나누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의어가 문맥과 별개로 의미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머리가 길다, 머리가 좋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

2) 속어와 합성표현

둘 이상의 단어가 대응하여 구성요소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관용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합성표현은 내적 구성이 자유로운 통사적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전체가 하나의 단어와 같은 기능을 갖는 연속적인--구성요소의 이동이나 삭제, 특히 분리에 의한 제삼요소의 삽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연쇄를 가리키며, 합성명사, 합성부사, 합성형용사, 합성동사 등의 어휘 범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3) 합성명사: 집사람, 들은 풍월, 알다가도 모를 일, 잉꼬부부,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 등.

합성형용사: 남다르다, 얼토당토않다, 어처구니없다 등

합성부사: 코가 삐뚤어지게, 눈에 불을 켜고, 대문짝만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등.

합성동사: 덮어두다, 뒤집어엎다, 거들떠보다, 날새다, 옷벗다, 발버둥치다, 거드

름피우다 등

3) 속어와 속담

속어와 속담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한 언어 사회에서 관용되고 있는 보편적 의미가 부여된 표현이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 쓰임이 다르다. 속담의 일차적 기능은 비유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유하여 진술할 경우에만 그 기능을 발휘한다. 피비유항과 비유항의 결합에서 속담은 비유항에 자리잡고 사실명제인 피비유항은 상황에 따라 생략되기도 한다. 이 때 의미 파악은 두 항의 결합으로 완성된다.

(4) 직장 없는 남편에게 바가지 굶기는 누워서 떡먹기다.

속담은 특정 사실에 대한 비유적 서술의 기능을 하므로 화용론적으로 부차적 기능으로 교화와 풍자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속어는 별도의 교화나 풍자의 기능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속담이 비유성, 교화 또는 풍자성을 잃고 속어화하거나, 속어가 속담처럼 쓰일 수도 있어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5)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민다.

그가 이번에도 오리발을 내밀거야.

다된 밥에 재 뿌리다. ⇒ 재를 뿌리다

물론 '소 귀에 경 읽기', '수박 겉 핥기', '독 안에 든 쥐', '개 밥에 도토리' 등은 속담으로서 교화와 풍자의 기능을 갖지만 합성명사로 사용되거나 '-이다'가 붙어 속어구문처럼 사용될 수 있다.

4) 속어와 은유표현

속어는 은유로부터 나와서 그 쓰임이 관용적으로 굳어진 것이지만 형식과 의미의 화석화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은유는 그 쓰임이 창조적이어서 통사 논항의 위치가 열려 있지만 속어는 다분히 고정된 형태가 반복적으로 쓰이며 관용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의도된 해석과 청자의 해석이 일치한다. 그러나 은유표현의 경우에는 의도된 해석과 청자의 해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은유는 일차적으로 비유적으로 쓰이지만 속어는 직설적으로 쓰인다. 또한 '쏟 살 같다, 짐체 같다, 똥판지 같다, 찰떡 같다, 철통 같다, 번개 같다, 얼음장 같다, 물 쓰듯하다, 쥐 죽은 듯하다' 같은 비유표현에서는 물론 통사논항의 위치가 열려 있어서 자유 구성이 가능하다.

1.3. 속어의 생성

속어는 통시성을 띠는 언어표현으로 그 생성의 배경적 요인으로 언어 경제성과 표현효과를 들 수 있다. 언어생활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고 그중

일부가 언중의 호응을 얻어 더 넓고 지속적으로 쓰여 관용적인 것으로 정착된 것이다. 속어 사용의 세대차이는 바로 이러한 통시성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오지랖이 넓다, 변죽을 울리다

날이 새다, 초를 치다, 죽을 쑤다

속어는 일상의 언어가 시가 되기 위하여 한 단계 건너뛴 도약의 결과라는 말이 속어의 표현 효과를 잘 말해 준다. 속어는 주어진 문맥에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반드시 존재하며, 주로 형식을 덜 갖춘 구어체에서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속어는 본래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나타내는 상황과 관용적 의미와의 근접 또는 유사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속어 생성에 보편적인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출발하여 사회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구체적 의미에서 추상적 의미로 귀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은유적 표현이 굳어져서 속어로 직설적으로 쓰이면서 표현이 더 굳어지거나 은유적으로 더 확장을 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합성동사나 합성형용사가 속어가 더욱 굳어진 예이며, 속어구문의 능동/피동, 사역/비사역, 명사구 생성 등은 복수의 표현형으로의 확장의 예들이다.

(7) 손이 크다 ⇒ 큰 손, 무릎을 꿇다 ⇒ 무릎을 꿇리다, 이를 갈다 ⇒ 이가 갈리다

1.4. 속어의 특징

속어의 음운론적 특징으로는 효과적 표현을 추구하는 구어체 발화의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초분절적 자질 사용, 음상을 고려한 표현의 선택, 생략 선호, 조사 생략 등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형태론적 특징으로는 일반 자유구문에서는 선택제약(selectional restriction)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유로이 다른 어휘로 대체될 수 있고, 전체 의미는 대체된 어휘의 의미만큼 바뀌는 반면에 속어구문에서는 기존 어휘 가운데 일부만을 고정적인 구성요소로 가지므로 선택제약을 어기지 않더라도 일부가 다른 어휘로 대체되면 속어구문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8) 비행기를 태우다: 수송기를 태우다/비행기를 조종하다.

(9) 싸이 노랗다/누렇다: 깡통/쪽박을 차다: 손을 대다/떼다: 입을 열다/다물다 등, 속어의 통사론적 특징은 먼저 주어, 목적어, 대격 등 일부 논항 위치가 굳어지지 않고 열려 있으며 어순, 조사의 사용, 하위범주화 규칙 등에 있어서 대개 문법적이기 때문에 자유구문처럼 그 통사구조와 속어구문을 특징짓는 고정부위의 수나 위치에 따라 형식적인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자유구문에서 구성요소가 의미상 독자적인 단위가 됨을 전제로하는 재구성(어순 도치, 외부 수식어 첨가, 특수조사 '은/는' '까지' 첨가, 내부 수식어 첨가 등)이나, 관형화, 대명사화 등의 통사적 조작에서 자유구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은 있다.

- (10) ㄱ. 그가 산통을 어처구니없게 다 깬어. 산통은 그가 다 깬어. 산통은 다 깨졌어.
 ㄴ. 그녀가 바가지를 자주 굶는다. 바가지를 아내가 굶는다. 그녀는 바가지까지 굶는다.
 ㄷ. 그가 주름을 처음부터 잡은 셈이지.
 ㄹ. 그는 배가 아마 아플거야.
 ㅁ. 그녀가 손을 아직도 벌리고 있어.

(11) 그녀가 굶은 바가지, 그가 먹은 미역국, 그가 맞은 바람, 그가 썩은 입.

물론 관형화는 구성요소 사이의 의미관계를 바꾸어 의미구조를 재구성하므로 의미의 유연성이 덜 하거나 대유표현에서 나온 숙어구문은 관형화할 경우 숙어구문의 의미는 상실된다. 이상의 통사적 조작에서 숙어구문이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모두가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신체어와 결부된 숙어나 외적 상황에서 유래한 숙어는 대유표현에서 유래한 숙어에 비해 제약이 덜 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숙어구문이 의미적으로 비합성적이라는 점은 숙어의 예외적 특징으로 흔히 지적되 왔지만, 숙어가 은유표현에서 유래했음을 고려할 때 각 구성요소의 직설의미만으로 규정될 수 없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어휘의미의 함은 아니나 전적으로 자의적인 것은 아니며, 의미적으로 어느 정도 투명하고 직설의미와 관용의미 사이에 유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 국수를 먹다, 두 손 다 들다, 손을 대다/뺀다, 아픈 데/곳을 찌르다

특히 상황의 유사에서 비롯된 숙어는 명사와 동사 부분이 독자적인 의미 단위로 인식된다.

2. 관용표현의 통사론

2.1. 예비적 지적

관용표현을 숙어구문이나 합성표현 또는 관용구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 이와 같은 복합적인 언어단위의 연쇄에 대한 통사론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숙어구문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듯하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숙어구문의 통사론을 구성하고자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간략히 다루어 보기로 한다.

숙어구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숙어구문의 본질을 해명하여, 자연언어 내에서 숙어구문의 기능과 위상을 정립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어구문의 의미 연구와 더불어, 숙어구문의 통사행태의 연구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숙어구문의 한정, 숙어구문의 유형화, 숙어구문 자료체의 구축 등이 필수적인 선행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선행작업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속어구문을 엄격하게 통사론적으로 기술하고, 체계화하여 그 의미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서 속어구문자료의 다양한 활용-단일어/이개어사전 편찬 또는 자연언어 처리 프로그램의 지원 등등-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체 구성의 방법론적 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2. 속어구문의 정의와 통사론적 한정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의적 속성을 지니는 언어단위의 복합적 연쇄를 속어구문으로 한정한다.

- (가) 단문 또는 단문의 연쇄차원에서 기술될 수 있다.
- (나) 의미구성이 비합성적 non-compositionnal이다.
- (다) 둘 이상의 고정부위를 내포하는데, 그중 하나는 반드시 단문 구조 내에서 통사적으로 술어 기능을 할 수 있는 동사, 형용사, 있다/없다, -이다/-아니다를 포함한다.
- (라) 고정부위의 응결 또는 고정성 frozenness은 고정/비고정의 양분대립에 의해 양가적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도의 변이를 갖고 한정된다.
- (마) 응결 또는 고정성의 개념은,
 - (ㄱ) 의미해석의 불투명성;
 - (ㄴ) 어휘분포의 극단적 제약;
 - (ㄷ) 계열체paradigme 구성의 제약;
 - (ㄹ) 명사구 구성제약;
 - (ㅁ) 보조사(양태조사) 분포의 제약;
 - (ㅂ) 양상modality, 시상tense/aspect 제약;
 - (ㅅ) 구문대응의 제약 등등의 변수의 복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속성에 의거하여 속어구문을 특히 다음과 같이 합성표현과 구별하고자 한다. 합성표현은 형태론적 차원에서 둘 이상의 요소로 분할될 수 있는 복합적 언어 단위의 연쇄로서, 전체가 하나의 단어로 기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체가 하나의 단어로 기능한다 함은 그것이 단일단어와 마찬가지로 동사나 명사 등으로 범주화될 수 있고 분포가 자유롭다는 점을 함축한다.

— 합성동사: 내려가다/내려오다, 발벗고 나서다, 귀담아 듣다,

늘고먹다...

— 합성형용사: 남다르다, 얼토당토않다, 그만그만하다, 피나는 (노력),

내로라 하는 (사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

— 합성명사: 들은 풍월, 큰 집...

— 합성부사: 울며 겨자 먹기로, 눈깜짝할 사이에, 취도 세도 모르게.

같은 값이면...

2.3. 속어구문의 유형

(가)-(마)의 속성의 집합으로 속어구문을 정의할 때, 속어구문은 우선 그 술어부위의 요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속어동사구문

- (1) 기영이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코가 납작해졌다.
- (2) 한 눈 팔지 말고 똑바로 해!
- (3) 이걸 누구 코에 바르냐?

— 속어형용사구문

- (4) 그 녀석은 짜-(수 + E)가 노랗다.
- (5) 종수는 겉다르고 속다른 녀석이다.

— 있다/없다형 속어구문

- (6) 태환이는 돈 끌어 모으는 데에는 뭐 있다
- (7) 그의 말도 일리가 있다.
- (8) 종운이 말은 중잡을 수가 없다.
- (9) 그는 피도 눈물도 없다.
- (10) 이 물건은 신기하기 짜이 없다.

— -이다/-아니다형 속어구문

- (11) 산삼은 부르는 게 값이다.
- (12) 이런 문제는 누워서 떡먹기다.
- (13) 요즈음 내 꼴이 말이 아니다.
- (14) 그의 고집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2.4. 속어동사구문의 통사적 기술

술어 위치에 실현되는 요소가 동사어휘로 특징지어지는 술어동사구문의 통사구조를 기술하기 위하여 우리는 M. Gross의 어휘 문법의 방법론을 채택해 보기로 한다.¹⁾ 이러한 시도는 이미 홍재성(1993)에서 소개되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 분류체계를 조금 수정 보완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한국어 속어동사구문의 유형을 설정할 수 있겠다.

1) 이에 대해서는 M. Gross(1982, 1990, 1991)를 참조할 것.

1) 단문구조의 속어동사구문²⁾I. N_0 C_1 -이 V

거털이 나다 ³⁾	살맛이 나다
끝장이 나다	살판이 나다
(동 + 바닥)-이 나다	젓비린내가 나다
촌티가 나다	철이 (나다 + 들다)
바람이 나다	탄로가 나다
(빨 + 빨따귀)-가 나다	개갈이 안 나다

II. N_0 C_1 -을 V

불장 다 보다 (네 + E)	활개를 치다
쓴맛 단맛 다 보다	물불 안 가리다
욕을 보다	(고개 + 눈 +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다
(햇 + E)빛을 보다	아랑곳 하지 않다
(가지 + 새끼)-를 치다	사죽을 못 쓰다
코웃음을 치다	쪽을 못 쓰다
판을 치다	

III. N_0 C_1 -을⁰ V

1. C_1 -을⁰ = C_1 -에
(벽 + 압초)-에 부딪치다
인정에 흐르다
2. C_1 -을⁰ = C_1 -에서
입에서 살살 녹다
3. C_1 -을⁰ = C_1 -로
끌로 가다

2) 속어동사구문의 통사적 기술을 위한 약호는 다음과 같다.

N_i : 자유명사구, 지수 i 는 통사적 논항을 구별해 준다.

(N_0 는 주어, N_1 는 제1보어 등)

C_i : 고정명사구, 지수 i 의 의미는 자유명사구의 경우와 동일

-을⁰: -을 이외의 비대격조사 표지, -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P_c : 단문구성 전체가 고정된 표현의 표지

3) 각 유형을 예시하는 자료는 고정부위만을 포함하는 예구의 형태로 제시한다. 또한 가능한 예를 모두 인용하지 않고, 한·두 가지 동사어휘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만을 보이기로 한다. 부정을 내포한 예는, 긍정/부정의 양상변이가 불가능해서 부정표현으로만 고정된 경우가 된다.

IV. N_0 C_2 -의 C_1 -을 V

유종의 미를 거두다
벼룩의 간을 내먹다

V. N_0 N_2 -의 C_1 -을 V

N-의 아픈 (데 + 곳)-을 (건드리다 + 찌르다)
N-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다
N-의 뒤를 밟다
N-의 굴레를 벗다
N-의 발목을 잡다
N-의 낙인을 찍다
N-물을 먹다
N-값을 하다

VI. N_0 N_2 -의 C_1 -을 V

C_1 -을⁰ = C_1 -에
N-의 눈-(밖 + E)-에 나다
N-의 (눈 + 마음)-에 들다
N-의 입에 오르내리다

VII. N_0 C_2 -을⁰ C_1 -이 V

C_2 -을⁰ = C_2 -에
영덩이에 빨이 나다
허파에 바람이 들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눈에 무엇이 썩이다

VIII. N_0 C_2 -을⁰ C_1 -이 V

1. N_2 -을⁰ = N_2 -에/P 데에

금이 가다	혈안이 되다
손이 가다	구멍이 뚫리다
이골이 나다	눈이 멀다
신물이 나다	인이 박히다

2. N_2 -을⁰ = N_2 -(에/--데에)

(년더리 + 년덜머리)-가 나다
들통이 나다
물이 들다

입을 모으다

XIX. N_0 P₂-에게 P-고 C₁-을 V

못을 박다

XX. P_C

1. 명령문

꿈 깨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두고 보자!

웃기지 마라!

옛-(이나 + E) 먹어라!

2. 의문문

이걸 누구 코에 바르냐?

3. 평서문

별 꿀 다 보겠다.

2) 복문구조의 속어동사구문

I. P_C-고

되로 주고 말로 받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

II. P_C-는데

남은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다

III. P_C-다가

(귀 + 입)-은 두었다가 뭐 하니?

IV. P_C-도

입이 열 (개 + E)-라도 할 말이 없다

들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다

V. P_C-면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한다

들췌 가라면 서러워한다

3) 기타유형

P-라면 꺼백 죽는다

P-면 어디 덧나니?

P-면 나와 보라고 해.

N-은 무슨 놈의 얼어죽을 N-이야

N-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

2.5. 숙어동사구문의 자료체 구축을 위하여

우리는 이상에서 소개한 숙어동사구문의 형식적 유형화의 틀에 따라 가능한 한 총망라하여 숙어동사구문을 체계화하는 것이 숙어구문의 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 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 체계를 좀더 완벽하게 정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특히 3)의 기타 유형은 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이고, XV~XX가 하나의 유형으로 성립될 수 있을 만큼 많은 예들을 포괄하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⁴⁾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론은, 숙어구문의 의미연구, 또는 숙어구문자료의 다양한 활용-각종 인쇄 언어사전 편찬이나, 자연언어처리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한 전산사전의 구축 등-을 염두에 둘 때, 상당히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첫번째 단계의 연구이고, 두번째 단계는 각 유형에 속하는 각 숙어동사구문의 통사·어휘적 속성을 정밀하게 분석 기술하는 작업이 된다고 하겠다. 이때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위의 2.2.(마)에서 열거된 (ㄱ)~(ㄷ) 사항에 관련된 속성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

4) 나아가서, 숙어형용사구문도 2.2.에서 예시한 같은 틀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합성부사 역시 유사한 기술이 가능할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합성부사는 내적인 구성이 단문의 형상을 지니면서 전체 연쇄가 고정되어 있는데, 연결어미에 의해 구별되고, 전체 연쇄가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경우이다. 이들 부류는 우선 다음과 같이 연결어미의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 P_C-게: 딱 부러지게, 입에 침이 마르게
 - P_C-고: 물불 안 가리고, N-이 떠나가라고, 꼬리를 물고
 - P_C-나: 어느 모로 보나, 그러나 저러나
 - P_C-도록: 귀가 닳도록, 손이 발이 되도록
 - P_C-듯(이): 찬물(을) 끼얹은 듯, 쥐죽은 듯, 개눈 감추듯
 - P_C-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 P_C-면: 말하자면, 하필이면
 - P_C-아(서): 무슨 바람이 불어서, 앞을 다투어
 - P_C-지: N-이 뭔지, 어쩐지, 그러면 그렇지
 - P_C-지만: 실례지만
 - P_C-어도: 모르긴 몰라도, 그러지 않아도
 - P_C-없이: 눈코 뜰 새없이, V-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 여기에, N_C-조사의 구조를 갖는 부류를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 N_C-로: 될 수 있는 대로, 그야말로
 - N_C-에: 영접결에, 삼시간에, 내친(걸음 + 김)-에
 - N_C-처럼: 그림자처럼, 현신짝처럼
 - N_C-같이: 귀신같이, 깜짝같이, 손살같이

의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3.에서는 관용표현의 의미문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3. 관용표현의 의미론: 관용표현의 언어학적 의미유형의 문제

3.1. 도입

관용표현을 둘러싼 연구에서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각 분야가 서로 다른 국면을 조망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러한 하위 분야들 중 이미 통사론적 기술에 대해서는 그 속성 분석과 형식적 분류를 보였으므로 이 章에서는 주로 의미론적 (내지 형태론적) 기술에 힘쓰겠다. 과거의 국어에 대한 연구 중에 관용표현의 의미론적 특징을 대략 기술한 두 편의 논문을 우선 소개한다.

안경화(1986)는 속어(관용표현을 가리킴)는 직설의미 즉 문자대로의 뜻에서는 비합성적이라 했다. 직설의미의 합으로는 속어의 관용의미가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바가지를 긁다' '바람을 맞다' 등의 직설의미로는 이상한 해석이 되는 경우에, 각각 '잔소리하다' '약속의 어김을 당하다' 라는 관용의미로 읽으면 적당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특징은 속어가 은유표현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관용의미가 어휘의 직설의미의 합은 아니나, 그렇다고 두 의미가 전혀恣意的은 아닌 有緣性을 띠고 있다고 본다. 어느 정도 합성적 관용의미를 가진 경우는 의미상 투명하기까지 하다고 한다.

(1) 국수(를) 먹다 [(남이) 결혼하다]

(두) 손을 들다 [포기하다]

(2) 손(을) 대다/떼다 [관계를 맺다/끊다]

아픈 데를/곳을 찌르다 [약점 따위를 언급하다]

직설의미와 관용의미가 근접된 (1)이나 유사한 (2)에서 의미가 투명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외부 상황에 대한 은유표현에서 유래한 속어 (3)을 보면 직설의미와 관용의미 간에 대응이 존재하고 그 관용의미는 합성적이라는 것이다.

(3) ㄱ. 구멍(이) 뚫리다/나다 [차질이 생기다]

ㄴ. 큰소리(를) 치다 [허풍을 떨다, 기세를 떨치다]

ㄷ. 다리(를) 놓다/건네다 [중계 역할을 하다]

위의 예에서 '구멍'이 '차질'에 대응하듯 각기 대응 단어가 있다. 그리고 상황의 유사에서 비롯된 속어는 명사와 동사 부분이 독자적인 의미 단위로 인식된다고 본다. 이런 대응이 신체어를 쓴 은유표현에서는 좀 막연하다.

(4) ㄱ. 손(을) 대다 [관계를 맺다]

ㄴ. 손(을) 잡다 [제휴하다]

ㄷ. 손(을) 빌리다/내밀다 [도움을 청하다]

(4)에서는 '손'에 동사가 달리 붙어 그 의미가 달라진다. 동사 부분이 명사 부분보다 관용의미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듯하다고 보는데, 이는 뒤에서 점검해 볼 만한 주장이다. 이 점에서 명사 부분에 독자적 관용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손'을 '관계 맺는 수단'으로, '대다'를 '(관계)를 맺다'로 막연히 대응시킬 수 있다고 했다.

대유 표현에서 유래한 (5)는 관용의미가 전체 구에 상응된다고 보아 한 의미 단위로 간주하였다.

(5) ㄱ. 깡통(을) 차다 [동냥질하다, 망하게 되다]

ㄴ. 눈(을) 감다 [죽다]

비교적 불투명한 관용의미 한 덩어리만을 전체 구에 대응시키려는 다음의 경우도 있다.

(6) ㄱ. 비행기(를) 태우다 [추켜세우다]

ㄴ. 학(을) 때다 [질리게 되다]

강위규(1988)도 관용어의 의미적 특성을 非合成的 구조로 보는 점이 앞서와 같다. '미역국을 먹었다'의 표현은 지시적 대응물(referent)을 갖지 못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뜻의 부조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관용어의 각 구성요소는 독자적인 뜻이 없어지므로, '낙방하다'라는 새 뜻을 지닌 한 단일 어휘소를 형성한다고 한다.

형태소에 이형태가 존재하듯 관용어에도 변이형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7) ㄱ. 속이 상하다

ㄴ. 속이 썩다

(8) ㄱ. 서슬이 시퍼렇다

ㄴ. 서슬이 푸르다

그러나 '콧대가 세다'가 '콧대를 세우다'로, '얼굴이 뜨겁다'가 '얼굴이 뜨거워진다'로, '등골이 오싹하다'가 '등골이 오싹해지다'로 바뀐 것들은 변이형이나 순수관용어로 보기는 어려워 파생관용어라 처리하였다.

관용어의 형성은 Hockett(1958)이 '새로운 표현 ⇒ 임시어(nonce-form) ⇒ 관용어'로 설명했고, Searle(1979)이 '비유 ⇒ 죽은 은유(dead metaphor) ⇒ 관용어'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관용어를 통시적으로 설명하려는 것보다는 공시적 증거를 기반으로 어느 범주에 속하는가 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비유적 표현이 뜻의 확장이나 특수화를 겪어 한 관용어가 된다고 본다.

구성요소의 뜻과 비유적 뜻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투명과 불투명의 척도를 다음에 보이겠다.

(9) 글자대로 은 유 관 용 어

i) 투명	ii) 반투명	iii) 반불투명	iv) 불투명	
책을 읽다		누은 소 타기	좁이 쭈시다	바가지를 굶다

직설의미와 관용의미 또는 글자대로의 뜻과 비유적 뜻과의 관계가 가장 유연적인 표현을 半透明이라 하고, 가장 無緣的인 표현을 불투명이라 한다면 불투명의 가장 끝에 순수관용어가 있다는 것이다. 半不透明 단계에는 은유와 관용어가 포개진다. 비유적 표현이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비유적 표현과 관용어 어느 쪽으로 보느냐가 문제라는 것이다. 관용어의 생성은 대개 비유적 확장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유적 표현과 관용적 표현을 분명히 구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관용표현의 통사·의미적 특성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한 것이 동음성이다. 의미의 단순한 합이 관용어가 아니라는 증거로 동음의 짝을 들고, 순수관용어는 이중노출(double exposure)을 구성한다고 했다. 즉 상황에 따라 구성요소의 합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합성적이지 아닌 새 관용적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10) ㄱ. 속이 썩어서 더 이상 못 보겠다.

ㄴ. 칠수는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

ㄷ. 눈 감아 주어라.

ㄹ. 너 맛 좀 볼래.

(10)의 표현은 정상적이고 예측될 수 있는 결합형이라 직설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또는 '화내다, 미리 좋아하다, 목인하다, 혼나다' 등의 관용의미로도 쓰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11)은 (10)과 다르다.

(11) ㄱ. 미꾸라지 용되었다.

ㄴ. 구름 잡다.

ㄷ. 애간장을 태우다.

ㄹ. 좁 쭈시다.

(11)에서는 글자대로의 직설의미란 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을 한편으로는 은유적 표현에 관련되고 다른 편으로는 관용어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사실 모든 관용어와 비유적 표현은 구별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한 장치로 이 동음성의 짝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동음성의 기준은 'X는 Y같이...'에서 처럼 '같이, 처럼...' 등의 비유적 표지를 가지는 명시적 직유뿐만 아니라, 'X는 Y다'와 같은 은유적 형태도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 보면 (10)은 순수관용어가 될 수 있지만, (11)은 제외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 기준은 관용어와 여러 면에서 포개지는 속담

이나 격언 등을 구분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상의 인용에서 마지막 부분의 관용어와 속담의 구분 기준은 과연 그렇게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관용표현의 정의를 넓게 잡아 그 속에 속담도 넣는 것이 편안할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가령 심재기(1986)에서는 어휘적 관용표현에 속어 등이, 어구 및 문장 차원의 관용표현에는 속담 등이 있다고 분류하였다. 원래 속어에는 어휘적 속어(knucklehead, turncoat 등)와 구절적 속어(How goes the enemy? [What time is it?]의 뜻)가 있다.⁵⁾ 본고에서는 구절적 속어의 확장영역 속에 속담을 포함하여 기술하는 입장을 취하겠다. 왜냐하면 위에 인용한 (10)과 (11)의 차이가 결코 관용어와 속담 구분에 유효할 수는 없고, 속담은 '어휘화가 될 수 있는 비유적 표현' 정도로 정의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관용어(속어)와 속담의 엄격한 구분은 유보해 두겠다.

3.2. 관용표현의 의미론적 분류

관용표현 내지 속어를 통사론적으로 분석 기술하는 일은 앞 장에서 했기에 여기서는 그 의미론적 측면에서 분석 기술하려 한다. 본래 통사론적 특징을 분석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관사생략 등의 특이한 제약이 전 대상자료 중 2~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Maurice Gross교수도 "8,000여개 속어문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통사적 특이성을 보이는 속어문의 예는 극히 제한된 수에 불과하다." (한정길 1986: 50)고 하였다. 물론 통사적 특성을 경시해 버리자는 취지로 이런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할 의미론적 분석이 왜 필요하며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합성어 즉 어휘적 속어의 의미론적 분석에 의한 분류는 대략 다음과 같이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2) 1. 합성명사류

1) 은유나 직유 등이 기제로 작용한 듯 보이는 예들

수식성분은 비유에 있어서의 보조관념이 되고 피수식성분은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예: 옥동자, 구슬땀, 개구리헤엄, 호랑이선생님, 무우다리, 장대비, 잉꼬부부, 회오리바람(첫 3 예는 사전에도 등재됨).

2) 대유(代喩)적으로 사용된 단어들

여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드는 제유(提喩)에 의한 표현과 속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를 사용하는 환유(換喩)표현이 있다.

예: 다홍치마, 국물, 화이트칼라, 사각모, 단발머리, 까까머리

5) 김영석, 이상역(1992) 참조.

(여기까지는 사전에 등재됨), 가시방석, 형광등, 뜯구름,
cf. 띄어쓴 구절적 숙어로서 관련될 만한 내용인 것들:
온실의 화초, 새밭의 피, 수박 길 훑기.

3) 의미전용

어느 정도의 유연성(有緣性)은 있으나 의미의 전용에 의해 지시내용이 바뀌게 된 경우들이다.

예: 공부벌레, 입방아, 콧방귀, 꿀밤, 흰소리, 큰애기(큰머느리), 옷걸이, 암탉.

4) 의미의 확대 및 축소

확대의 예: 콧비기, 피죽, cf. 들은 풍월.

축소의 예: 바지저고리, 큰집, 큰소리, 큰아버지.

5) 의미의 추상화 및 미화

추상화의 예: 풀머리, 낮가죽, 콧대, 납작코, 눈독, 까막눈, cf. 그림의 떡.

미화의 예: 밤손님, 양상군자, 여드름박사.

6) 기타

예: 눈먼돈, 가는귀, 입찬소리, cf. 제눈에 안경.

ㄴ. 합성동사류

1) 다의어를 포함한 경우

예: 위아래없다, 앞뒤모르다, 목자르다, 벼락맞다, 다리놓다.

2) 결합과정에서 의미전용이 일어난 경우

예: 머리깎다, 옷벗다, 날새다, 국수먹다, 손가락절다.

3) 특수한 동사와 결합하는 구조

예: 거드름피우다, 오해사다, 귀먹다, 발버둥치다.

cf. 구들장을 지다.

위와 같은 틀에 의해 구절적 숙어도 분류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cf.(참조표시) 뒤에 몇 개의 구절적 숙어 예를 보인 바 있지만 이외에도 문장 형태를 갖춘 긴 숙어표현도 분류 예시될 수 있을 것이다.

3.3. 관용표현의 언어학적 의미 유형

관용표현의 언어학적 의미 유형을 살펴 보기 위해 본 연구의 예비 작업으로 모은 관용표현의 목록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관용표현은 그냥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면 맨 앞에 명사(또는 체언)가 오게 마련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우선 명사류에 의한 의미 유형을 먼저 고찰하기로 한다. 이 때에 명사 논항이 둘 이상 있을 때는 語頭(또는 文